

\*\*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\*\*

-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.
- 다음 주일은 Teestube에서 예배드립니다.
- 성탄절 예배: 12월 25일(목), 유아세례(신청 시), 성찬식
- 송구영신 새벽기도회: 12월 29일(월)-1월 3일(토) 07시 Teestube
- 남녀선교회 총회: 오늘 2부 예배 후
- 제직회: 다음 주일
- 2026년도 매일성경 신청: 오늘까지 신청 마감합니다.
- 바이블12: 수요일 21시 30분 신구약 중간시대2, 온라인
- 라합1나라 모임: 12월 2일(화) 10시 허지은 님 가정
- 방문: 김선구 선교사(헝가리)
- 귀가: 김한진-박종희
- 생일축하: Thomas Gamerschlag, 김대진, 김평님

#### ◆ 말씀일기 일정

일/느9:23-38	월/느10:1-39	화/느11:1-36	수/느12:1-26
목/느12:27-47	금/느13:1-14	토/느13:15-31	일/시편137:1-9

#### ◆ 114 운동-하루(1) 한번(1) 말씀일기 & 성경 (4)장 통독

성경 300독 대행진: 254독

#### ◆ 예배위원 안내 ◆

	11월 30일	12월 7일	12월 14일	12월 21일
예배기도	김종권	단주현	권순아	백윤정
안내위원	예배부			
봉헌위원	장혜진 백윤정	최수정 강일구		
애찬위원	밥상 일곱	밥상 하나	밥상 둘	밥상 셋



Presbyterianische  
Missionsgemeinde  
Dusseldorf e.V.

“네 자신을 연단하라”(딤전 4:7)



주일예배 11:45 Teestube 소망방  
14:00 Mutterhauskirche  
유초등부 14:00 Teestube 평화방  
청소년부 14:00 Teestube 믿음방  
청년부 15:30 Teestube 믿음방

토요기도회 07:00 Teestube 소망방



1983년 5월 8일 창립

담임/ 손교훈 목사 Pfr. Dr. Kyo-Hoon Sohn

☎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교육/ 이동훈 목사 HP. 01525-2367 629

교육/ 박승은 목사 HP. 0157-3845 5550

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 HP. 0157-7388 7498

## 뒤셀도르프선교교회

교회 홈페이지 [duemission.de](http://duemission.de)

교회당 주소 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

# 주 일 예 배(1.Advent)

인도: 손교훈 목사

※입례송/Eingangslied .....	왕이신 나의 하나님 .....	다 함 께
※예배부름/Eingangsgebet .....	.....	인 도 자
※찬송/Gemeindelied .....	5장 .....	다 함 께
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.....	.....	다 함 께
성시교독/Wechselwort.....	교독문 115번 .....	다 함 께
찬송/Gemeindelied .....	98장 .....	다 함 께
기도/Gebet .....	.....	김종권 안수집사
찬양/Chor .....	소망으로 오신 주님 .....	찬 양 대
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.....	느헤미야 9:23-38 .....	인 도 자
설교/Predigt .....	그저 바랄 것은 .....	손교훈 목사
찬송/Gemeindelied .....	310장 .....	다 함 께
봉헌/Kollekte.....	.....	다 함 께
교제/Bekanntmachung.....	.....	다 함 께
※주기도송/Vaterunser.....	.....	다 함 께
※축도/Segen .....	.....	손교훈 목사

※ 표는 일어섭니다.

## \*\*교회 구조\*\*

Ev.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.V.

Bank: Stadtsparkasse Düsseldorf

IBAN: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

IBAN: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

## ▶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느7:5-73 '결국 사람이다'◀

성벽이 완성되자

이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.

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, 사람이었다.

그 건물을 지은 자도 사람이요

그 건물을 지킬 자도 사람이요

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자도  
사람이기 때문이다.

그 건물을 지은 이유도 결국 사람을 위함이니,  
지루할 정도로 나열되는 사람들의 이름도 탓할 수 없다.

그저 내가,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(2)

그 이름의 한 사람일 수 있기를 기도해 보지만,  
이 밤, 아무래도 잠이 오질 않는다.

자꾸 어딘가로 달아나려고 하는 내 마음 향해

'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더욱 사람들 속으로'

'당장 희미하더라도 더욱 사람들 속으로'

외쳐 보지만,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다.

사람들 속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

나는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나보다.

## ▶ 지난 주 봉헌 내역(11월 23일-11월 29일)◀

십일조	감사 및 목적현금
김평님, 윤영숙, 무명	백수정, 무명, 정기승(장학)
<b>총액 466,60유로 = 366,60(예배당) + 100,00(온라인)</b>	